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의 유형 분류: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이용하여

서 장 원[†]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자살의 대인관계 이론에 따르면, 자살욕구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여 자살행동 실행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두 변인 간 상관관계가 예상과 달리 유의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부재와 자살욕구의 관계를 개인 수준에서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성인 601명을 대상으로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하였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부재와 자살사고, 대인관계 관련 자살욕구 특성, 우울, 불안, 정서적 고통 감내력 수준을 측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분석 결과 총 5개의 집단이 도출되었다. 이 중 세 집단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보통에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낮은 두 집단은 다시 자살욕구가 강한 집단과 약한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전자는 우울과 불안 수준이 높고 정서적 고통을 견디는 능력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후자는 우울과 불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정서적 고통을 견디는 능력은 평균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살의 대인관계 이론이 가정한 바와 대체로 일치하는 것이다. 다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낮고 자살욕구 수준 또한 높은 사람들이 예상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자살욕구 수준이 높으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강한 집단은 나타나지 않아 후속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어: 자살, 자살 실행력,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잠재프로파일 분석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서장원, (5489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Tel: 063-270-2927, E-mail: jangw.seo@gmail.com

자살은 국내외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문제행동이지만, 그 기제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많은 실정이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자살의 과정을 설명하는 유력한 이론이 소개되면서 관련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Chu et al., 2017). 대표적인 자살 연구자인 Joiner(2005)가 개발한 자살의 대인관계 이론(interpersonal psychological theory of suicide: IPTS)에서는 치명적인 자살행동이 나타나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우선 소속욕구의 좌절(thwarted belongingness)은 타인과 관계 맺고자 하는 욕구가 좌절되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요소인 짐이 된다는 인식(perceived burdensomeness)은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짐이 된다고 지각하는 것을 말한다. 소속욕구 좌절이 심하고 짐이 된다는 인식이 강할수록 자살욕구는 증가한다(Joiner, 2005; Van Orden et al., 2010).

하지만 자살욕구가 강하다고 해서 반드시 자살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IPTS에서는 앞서 제시한 두 요소에 더해 자살실행력(capability for suicide)을 갖추어야만 치명적인 자살행동을 나타낼 수 있다고 제안한다. 자살실행력이란 실제로 자살행동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부재(fearlessness about death: FAD)와 통증 감내력(pain tolerance)으로 구성된다(Joiner, 2005; Van Orden et al., 2010). 자살실행력이 높다는 것은 곧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약하고, 자살에 수반되는 통증을 견디는 능력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Joiner(2005)의 이론에 따르면, 자살욕구가 높더라도 자살실행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치명적인 자살행동은 나타

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자살실행력이 높다 해도 자살욕구가 높지 않으면 치명적인 자살행동을 하지 않는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자살욕구와 자살실행력은 IPTS에서 서로 독립적인 개념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관련 경험연구들에 따르면, FAD와 자살욕구 수준은 중간에서 약한 정도의 정적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e.g., 서장원, 2019; Monteith, Bahraini, & Menefee, 2017; Oakey Frost et al., 2022; Seo & Kwon, 2018; Wachtel et al., 2014). 또한 자살사고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암묵적 수준에서 죽음을 덜 두려워한다는 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Hussey, Barnes-Holmes, & Booth, 2016).

이러한 결과들은 FAD와 자살욕구가 서로 독립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IPTS의 기본가정과는 불일치하는 결과로도 볼 수 있으며, 그러한 가정 위에 세워진 자살행동 기제와 관련된 명제들의 진위여부를 의심하게 할 만한 결과이기도 하다. 다만 앞서 언급한 대로 FAD와 자살욕구의 상관관계는 중간에서 약한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FAD와 자살욕구의 관계를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해 보는 것은 IPTS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수정이나 개선의 여지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FAD와 자살욕구의 관계를 탐색하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IPTS의 주요 원리를 고려한 유력한 가지 방법은 개인 수준에서 해당 변인들의 양상을 탐색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IPTS에서는 특정 개인에게서 자살욕구와 FAD가 모두

높을 때 자살위험성이 증가한다고 제안했다(Van Orden et al., 2010). 따라서 변인 수준이 아닌 개인 수준에서 FAD와 자살욕구의 존재 양상을 분석하여 두 변인이 IPTS에서 가정하는 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유력한 분석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분석방법으로는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들 수 있다. 잠재프로파일분석은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사례들의 잠재적인 집단구조를 분석하는 통계기법이다(Marsh, Lüdtke, Trautwein, & Morin, 2009). 예를 들어, 자기보고형 척도를 자료로 사용할 경우 각 척도에 반응하는 패턴이 유사한 사례들을 묶어 하나의 집단으로 분류하는 식으로 집단구조를 분석한다(Marsh et al., 2009). IPTS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FAD와 자살욕구가 모두 높은 집단이 있는가 하면, FAD는 높지만 자살욕구는 낮은 집단이 존재해야 한다. 이 경우 IPTS의 기본 가정은 틀리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반면 FAD가 높은 경우 자살욕구 측면에서 집단이 구분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면, FAD와 자살욕구에 대한 IPTS의 기본가정은 틀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살실행력의 주요 요소인 FAD와 자살욕구의 관계 양상을 개인 수준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적은 사람들, 즉 FAD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자살욕구 측면에서 서로 다른 두 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여기에 더해 각 집단의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탐색하고자 IPTS에서 제안하는 자살욕구 관련 변인(소속감 좌절과 짐이 된다는 인식)과 전반적인 정신건강 수준을

반영하는 변인들인 우울과 불안, 정서적 고통 감내력 수준을 함께 분석하였다.

방 법

연구 대상 및 절차

만 18세 이상의 성인 601명(남자 236명, 여자 365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의 연령 범위는 18세에서 37세로 확인되었다. 참가자를 모집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를 실시하였으며, 참여를 원하는 경우 지정된 온라인 설문시스템에 접속하여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안내되었다. 질문지는 익명으로 작성되었으며, 불성실 응답을 가려내기 위해 설문지 응답에 소요된 시간을 측정하였다. 모든 참가자들의 응답시간이 20분을 초과하여 불성실 응답은 없는 것으로 보고 모든 자료를 분석에 포함시켰다. 본 연구는 대학 연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실시되었으며, 참여자들은 소정의 참가비를 지급받았다.

측정 도구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부재 척도. 자살실행력을 측정하는 도구인 Acquired Capability for Suicide Scale(ACSS; Van Orden et al., 2008)의 단점을 보완하여 개발된 도구이며, 7개 문항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부족 정도를 측정한다. 각 문항은 7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7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며, 문항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총점을 계산한다. 총점이 높을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원판 ACSS-

Fearlessness About Death (ACSS-FAD)와 한국 어판 ACSS-FAD는 모두 신뢰도와 타당도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Ribeiro et al., 2014; Seo & Kwon, 2018).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 (Cronbach's alpha)는 .87로 확인되었다.

고통 감내력 부족 척도. Distress Intolerance Index(DII)는 정서적 고통 감내력을 측정하는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McHugh & Otto, 2012). 각 문항은 5점 척도(0점: 전혀 그렇지 않다 ~ 4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정서적 고통 감내력이 낮은 것으로 해석한다. 원판 DII의 신뢰도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McHugh & Otto, 2012), 한국판 DII 또한 내적 일치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 준거 타당도, 수렴/변별 타당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Seo & Kwon, 2014).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 (Cronbach's alpha)는 .89로 확인되었다.

한국판 CES-D. CES-D는 우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Radloff(1977)가 개발한 도구이며,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0점 :극히 드물게 ~ 3점: 거의 대부분)로 평정하며, 합산된 총점이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한국판 CES-D의 내적 일치도 (Cronbach's alpha)는 .8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Cho & Kim, 1998).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는 .87로 확인되었다.

상태 특성 불안 척도 단축형. State Trait Anxiety Inventory-Brief (STAI-B)는 불안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단축형 도구이며, 총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Marteau & Bekker, 1992). 각 문항은 4점 척도(0점: 전혀 아니다 ~ 3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한다. 문항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총점을 계산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불안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STAI-B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Marteau & Bekker, 1992).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 (Cronbach's alpha)는 .81로 확인되었다.

Beck 자살사고 척도. Beck Scale for Suicidal Ideation(BSSI)는 자살사고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이다(Beck, Steer, & Ranieri, 1988). 총 1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0점부터 2점 사이에서 평정된다. 합산된 총점이 높을수록 자살사고를 많이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BSSI는 내적 일치도와 공준 타당도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Beck et al., 1988; Shin, Park, Oh, & Kim, 1990),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는 .86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욕구 질문지. Interpersonal Needs Questionnaire(INQ)는 IPTS에서 자살욕구 관련 변인인 소속욕구의 좌절과 짐이 된다는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이다(Van Orden, Cukrowicz, Witte, & Joiner, 2012). INQ는 여러 버전으로 개정되었는데, 10개 문항으로 구성된 버전(INQ-10)이 타당도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Hill et al., 2015). 한국판 INQ-10 또한 신뢰도와 타당도가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Seo, 2020). INQ-10의 각 문항은 7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7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합산된 총점이 높을수록 소속

표 1. 각 집단의 모형 적합도

집단수	BIC	BIC차이	ICL	ICL차이	사례수 (최대/최소)
5	-9202.83		-9425.78		193/68
6	-9213.24	-10.41	-9422.68	3.1	152/55
7	-9233.50	-20.26	-9454.71	-32.03	155/32

주.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ICL=Integrated Complete-data Likelihood

욕구의 좌절이 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89로 확인되었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집단의 수와 프로파일의 형태를 분석하기 위해 R(version 4.0.4)의 mclust 패키지(Fraley & Raftery, 1998)를 사용하였다. 잠재프로파일분석은 군집변인을 이용해 집단을 분류한 후 관련변인에 대한 추가 분석을 실시하는 2단계 분석방식과 군집변인 및 관련변인을 동시에 투입하는 1단계 분석방식으로 구분된다. 현재는 두 가지 방법이 모두 사용되고 있지만, 첫 번째 방법은 계층 분류의 확실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사용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군집변인과 관련변인을 동시에 투입하여 분석하는 1단계 분석방식을 사용하였다(Vermunt, 2010). FAD와 INQ, 자살사고는 군집변인으로 투입하였고, 우울과 불안, 정서적 고통감내력은 관련변인으로 투입하였다.

집단의 수는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BIC)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잠재프로파일분석에서는 BIC가 충분히 감소해야 적합한 모형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집단의 수를 늘린 모형의 BIC가 이전 모형에 비해 충분히 감소하지 않으면, 집

단을 더 이상 추가하지 않고 이전 모형을 채택한다. BIC에 더해 Integrated Complete-data Likelihood(ICL)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ICL은 BIC에 집단 간 중첩을 측정하는 항을 더하여 계산하기 때문에(Biernacki, Celeux, & Govaert, 2000), BIC를 보완하는 지표로 많이 사용된다(Scrucca, Fop, Murphy, & Raftery, 2016). BIC와 ICL 결과의 불일치 상황을 감안하여 LMR (Lo-Mendell-Rubin) 검정 방법을 추가로 사용하였다. LMR 검정은 조정된 점근분포(asymptotic distribution)를 이용하여 모형들의 우도비(likelihood ratio: LR)를 비교하는 검정법을 말한다(Lo, Mendell, & Rubin, 2001). 기초 모형과 집단 수를 추가한 모형 간의 LMR 검정 결과가 유의하지 않을 경우 기초 모형을 선택한다(Ferguson, Moore, & Hull, 2020).

결 과

FAD와 INQ, 자살사고 점수 프로파일에 따른 집단구분

수집된 자료에 대한 BIC 분석결과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그림을 보면 모형에 따라 BIC 변화양상이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점수가 가장 낮은 모형을 보면 집단 수가 5개일 때 최적의 점

수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분석 패키지에서 선정한 최적의 BIC 모형은 VVE(ellipsoidal, equal orientation)로 확인되었으며, 집단의 수는 5개로 나타났다. 같은 모형의 ICL을 확인한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제시된 바와 같이 ICL의 경우 집단이 5개일 때 보다 6개일 때 점수 크기가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아 적합도 개선 정도의 유의성을 확인할 필요

가 있다. 이에 집단 수 5개와 6개 모형에 대한 LMR 검정을 실시하였다. 실시결과 우도비 값이 -23.21로 나타나 두 모형 간 적합도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LMR LR($df = 0$) = -22.07, $p = 1.00$. 따라서 최종적으로 5개 집단 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5개 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2에 제시하였고, 프로파일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그림 2의 척도점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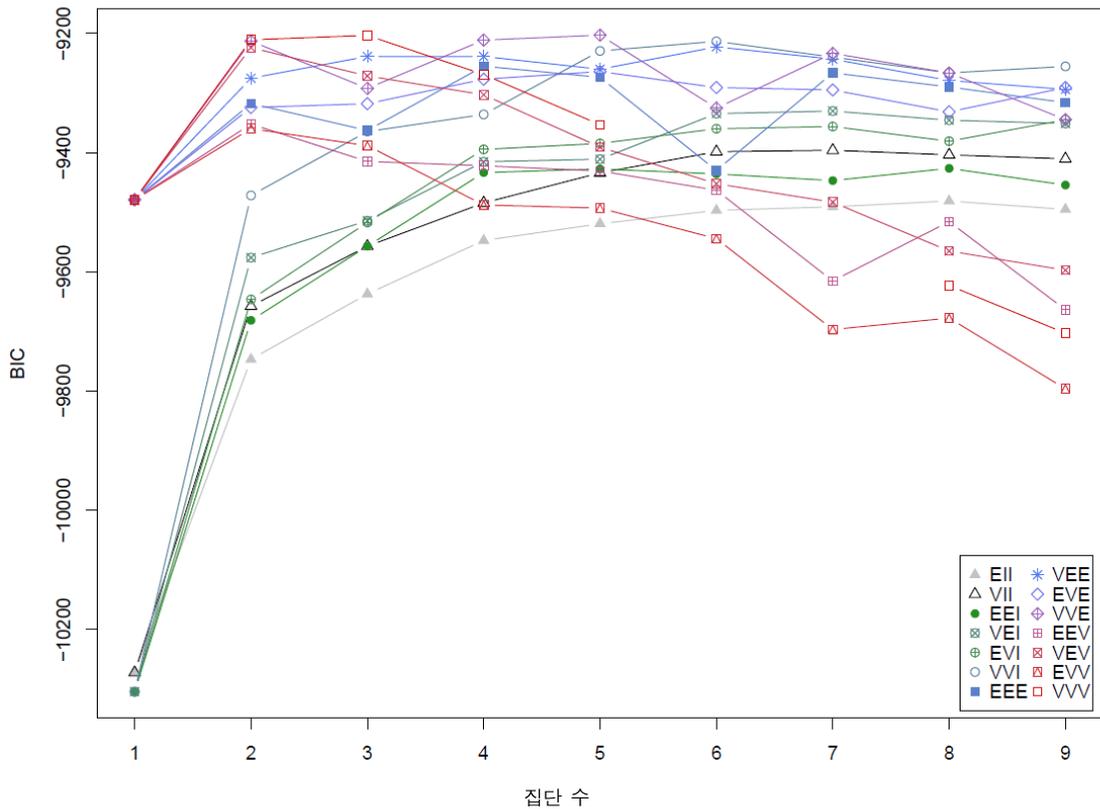


그림 1. 모델에 따른 BIC 변화

주.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EII=spherical, equal volume; VII=spherical, unequal volume; EEI=diagonal, varying volume and shape; VEI=diagonal, varying volume, equal shape; EVI=diagonal, equal volume, varying shape; VVI=diagonal, varying volume and shape; EEE=ellipsoidal, equal volume, shape, and orientation; EVE=ellipsoidal, equal volume and orientation; VEE=ellipsoidal, equal shape and orientation; VVE=ellipsoidal, equal orientation; EEV=ellipsoidal, equal volume and equal shape; VEV=ellipsoidal, equal shape; EVV=ellipsoidal, equal volume; VVV=ellipsoidal, varying volume, shape, and orientation

표 2. 집단별 평균(표준편차) (N = 601)

집단	ACSS-FAD	INQ	BSSI	CESD	STAI-B	DII
전체	19.43(9.90)	28.94(11.93)	5.60(5.90)	13.20(8.16)	6.46(3.50)	18.27(8.29)
1(n = 110)	12.98(6.58)	28.82(10.83)	5.73(3.34)	14.12(7.43)	7.53(3.27)	22.33(5.77)
2(n = 125)	14.55(5.93)	28.72(8.08)	2.07(1.63)	9.11(5.26)	4.71(2.39)	9.65(5.11)
3(n = 105)	16.24(7.63)	28.08(10.33)	0.45(0.69)	11.30(5.95)	7.32(2.84)	18.26(6.37)
4(n = 193)	25.67(9.98)	33.58(13.72)	11.70(5.75)	18.36(8.76)	7.65(3.73)	21.35(8.33)
5(n = 68)	25.70(8.70)	17.60(7.33)	1.59(1.28)	7.05(4.36)	3.29(2.15)	18.23(7.45)

주. ACSS_FAD=죽음에 대한 두려움 부재 척도, INQ=대인관계욕구 질문지, BSSI=Beck 자살사고 척도, CESD=한국판 CES-D(우울), STAI_B=상태특성불안척도 단축형, DII=고통감내력 부족 척도

비교의 편의를 위해 모두 표준화하였다.

각 집단의 특징을 살펴보면, 집단 1에는 전체의 18.3%인 110명이 속하였고 FAD 수준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Z = -.65$. 좌절된 소속감과 집이 된다는 인식을 반영하는 INQ 점수와 자살사고를 반영하는 BSSI 점수는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Z = -.01$; $Z = .02$. 집단 2는 전체의 20.7%인 125명이 포함되었다. 집단 1과 유사하게 FAD 수준은 낮았으며, $Z = -.49$, INQ 점수는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Z = -.02$. 한편 BSSI 점수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Z = -.60$. 집단 3에는 전체의 17.5%인 105명이 포함되었으며, FAD 점수는 다소 낮은 편이었다, $Z = -.32$. INQ 점수는 앞선 두 집단과 유사하게 중간 정도였고, $Z = -.07$, BSSI 점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Z = -.87$.

집단 4와 집단 5는 FAD 점수가 높은 두 집단이었다. 먼저 집단 4에는 전체의 32.1%인 193명이 포함되었고, FAD 점수와 BSSI 점수가 모두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Z = .63$; $Z = 1.03$. INQ 점수도 다소 높은 편이었다, $Z = .39$. 한편 집단 5에는 전체의 11.3%인 68명이 포함되었는데, FAD 점수는 집단 4와 유사하게 높았으나, $Z = .63$, BSSI 점수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Z = -.68$.

INQ 점수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Z = -.95$.

관련 변인들 비교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분류된 5개 집단의 우울과 불안, 정서적 고통감내력 수준을 간단히 비교해 보겠다. 우선 FAD 점수는 낮고 INQ와 BSSI는 중간 수준이었던 집단 1은 우울 점수와 불안 점수가 중간에서 다소 높은 수준이었고, $Z = .11$; $Z = .30$, 정서적 고통감내력 부족을 반영하는 DII 점수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Z = .49$. 이 집단은 정서적으로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현재 스트레스 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자살 관련 욕구는 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FAD와 BSSI 점수가 모두 낮았던 집단 2는 우울 점수와 불안 점수, 그리고 DII 점수가 모두 낮은 수준이었다, $Z = -.50$; $Z = -.50$; $Z = -1.04$. 이 집단은 정서적으로 매우 안정된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스트레스 수준 또한 대체로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FAD와 BSSI 수준이 집단 2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던 집단 3의 경우, 우울 점수와 불안 점수, DII 점수가 대체로 중간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Z = -.23$; $Z = .24$; $Z = -.00$. 이 집단은 정서적 안정성 측면이나 스트레스 수준 측면에서 대체로 평균 범위에 해당하는 집단으로 보인다.

집단 4는 FAD 수준과 BSSI 수준이 모두 높은 집단이었다. 이 집단의 경우 우울 점수가 높고, $Z = .63$, 불안 점수와 DII 점수 또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Z = .34$; $Z = .37$. 이 집단은 고통스러운 감정을 견디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스트레스 수준 또한 높은 집단으로 IPTS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자살행동에 취약할 수 있는 집단인 것으로 추정된다.

FAD 점수는 높으나 BSSI 점수는 낮았던 집단 5는 우울 점수와 불안 점수가 낮았으며, $Z = -.75$;

$Z = -.91$, DII 점수는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Z = -.01$. 이 집단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스트레스 수준이 낮고 자살욕구 또한 낮은 집단으로 간주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FAD와 자살욕구의 관계 양상을 개인 수준에서 분석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총 5개의 집단이 추출되었으며, 이 중 두 집단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적은 집단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집단들은 자살욕구 측면에서 서로 구분되었는데, 한 집단은 자살욕구 수준이 높고, 다른 한 집단은 자살욕구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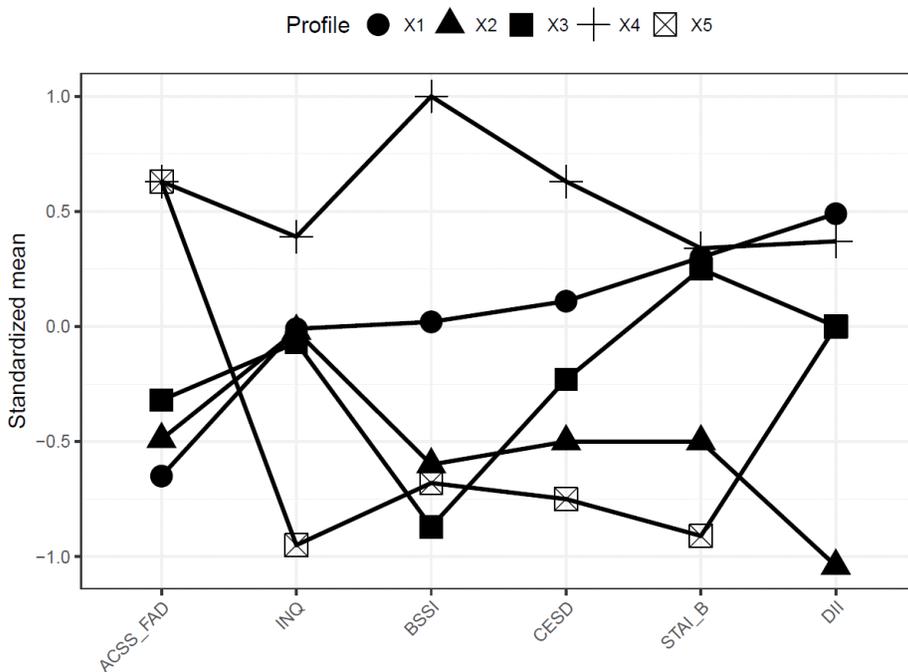


그림 2. 집단 별 점수 프로파일

주. ACSS_FAD=죽음에 대한 두려움 부재 척도, INQ=대인관계욕구 질문지, BSSI=Beck 자살사고 척도, CESD=한국판 CES-D(우울), STAL_B=상태특성불안척도 단축형, DII=고통감내력 부족 척도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적고 자살욕구 수준이 높았던 집단은 우울 및 불안 수준이 높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견디는 능력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적고 자살욕구 수준도 낮은 집단은 우울 및 불안 수준 또한 낮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자살욕구가 높거나 낮은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으며, 두 요소가 모두 갖추어졌을 때 자살행동에 취약할 수 있다는 IPTS의 기본가정(Joiner, 2005; Van Orden et al., 2010)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IPTS에서 제안하는 FAD와 자살욕구의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을 지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추가적인 논의 및 후속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집단으로 선정된 두 집단의 구성원 수를 보면, 자살욕구가 높았던 집단이 낮았던 집단보다 2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IPTS에서 예상하는 바와는 다소 불일치하는 것이다. IPTS에서는 FAD 기준과 자살욕구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들이 적을 것이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제 자살률이 낮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Joiner, 2005; Van Orden et al., 2010).

둘째, 본 연구에서 자살욕구 수준이 높으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강한 집단은 확인되지 않았다. IPTS에 따르면, 자살욕구가 강하더라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충분히 줄어들지 않으면 치명적인 자살행동을 실행할 수 없다(Van Orden et al., 2010). 이는 자살사고 유형률과 실제 자살률 간에 큰 차이를 일부 설명한다(Klonsky, May, &

Saffer, 2016).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자살욕구가 높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강하거나 혹은 중간 정도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집단이 도출되지 않았으며, 자살욕구가 높을 경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모두 저하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기존 연구들에서 FAD와 자살욕구 사이에 약하거나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가 일관되게 보고된 것을 부분적으로 설명한다. 두 변인 간에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기 위해서는 FAD와 자살욕구 수준이 모두 높은 집단의 수가 적고, 자살욕구 수준이 높지만 FAD는 낮은 집단이 어느 정도 규모로 존재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러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지만, 가능한 설명으로는 자살사고의 죽음에 대한 둔감화 효과가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겠다. IPTS에 따르면, FAD는 죽음에 반복적으로 노출될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제안되었다(Joiner, 2005; Van Orden et al., 2010).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실제 죽음을 의미한 것이지만(e.g., Horn, Stanley, Spencer-Thomas, & Joiner, 2018), 자신의 가상적인 죽음 또한 반복적으로 노출될수록 두려움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자살사고와 죽음에 대한 암묵적 두려움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에 따르면, 자살사고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죽음에 대한 암묵적 두려움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Hussey et al., 2016).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두 변인의 인과적 관계를 좀 더 정밀하게 탐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IPTS의 기본 가설들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표본은 비임상집단이기 때문에 결과 또한 비임상집단에만 적용될 수 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자살욕구는 연속선에서 개념화될 수 있는 특성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임상집단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가질 수 있지만(Cukrowicz et al., 2011; Ribeiro et al., 2014; Van Orden et al., 2012), 실제 자살위험도가 높은 집단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연구결과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탐색적 연구이며, 자료 기반 분석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자료가 달라질 경우 집단의 구조가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향후 재검증 연구를 통해 안정적인 집단구조를 밝혀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FAD 및 자살욕구를 측정하기 위해 자기보고형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자기보고형 도구는 자살연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측정방식이지만 의도적인 왜곡이나 기억오류의 한계가 있으며(O'Connor & Nock, 2014), 측정영역이 중첩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암묵적 수준과 명시적 수준에서 다른 양상을 나타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Hussey et al., 2016).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과제 등을 통해 죽음에 대한 정서적 반응성을 측정하여 보다 정밀한 평가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각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우울 및 불안, 정서적 고통감내력 수준을 비교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기본적인 정서적 특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보다 직접적으로 자살관련 변인을 비교하는 것 또한 집단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자살계획이나 자살시도, 단기적으로 자살 위험을 높이는 요인(예: 수면 문제, 각성 조절 관련 문제)을 분석에 추가하여 집단별 비교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시장원(2019). 자살 실행력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한국심리학회지:건강*, 24(3), 587-604.
- Beck, A. T., Steer, R. A., & Ranieri, W. F. (1988). Scale for suicide ideation: Psychometric properties of a self report versio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4, 499-505.
- Biernacki, C., Celeux, G., & Govaert, G. (2000). Assessing a mixture model for clustering with the integrated completed likelihood. *IEEE Transactio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 22(7), 719-725.
- Cho, M. J., & Kim, K. H. (1998). Use of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CES-D) scale in Korea.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86(5), 304-310.
- Chu, C., Buchman-Schmitt, J. M., Stanley, I. H., Hom, M. A., Tucker, R. P., Hagan, C. R., ... & Michaels, M. S. (2017). The interpersonal theory of suicide: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a decade of cross-national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43(12), 1313-1345.
- Cukrowicz, K. C., Schlegel, E. F., Smith, P. N., Jacobs, M. P., Van Orden, K. A., Paukert, A. L., ... & Joiner, T. E. (2011). Suicide ideation among college students evidencing subclinical depression.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59(7), 575-581.
- Ferguson, S. L., G. Moore, E. W., & Hull, D. M.

- (2020). Finding latent groups in observed data: A primer on latent profile analysis in Mplus for applied researcher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44*(5), 458-468.
- Fraley, C., & Raftery, A. E. (1998). MCLUST: Software for model-based cluster and discriminant analysis. *Department of Statistics, University of Washington: Technical Report, 342*.
- Hill, R. M., Rey, Y., Marin, C. E., Sharp, C., Green, K. L., & Pettit, J. W. (2015). Evaluating the Interpersonal Needs Questionnaire: Comparison of the reliability, factor structure, and predictive validity across five version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45*(3), 302-314.
- Hom, M. A., Stanley, I. H., Spencer-Thomas, S., & Joiner, T. E. (2018). Exposure to suicide and suicide bereavement among women firefighters: Associated suicidality and psychiatric symptom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74*(12), 2219-2237.
- Hussey, I., Barnes-Holmes, D., & Booth, R. (2016). Individuals with current suicidal ideation demonstrate implicit "fearlessness of death". *Journal of Behavior Therapy and Experimental Psychiatry, 51*, 1-9.
- Joiner, T. (2005). *Why people die by suicid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Klonsky, E. D., May, A. M., & Saffer, B. Y. (2016). Suicide, suicide attempts, and suicidal ideation.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12*, 307-330.
- Lo, Y., Mendell, N. R., & Rubin, D. B. (2001). Testing the number of components in a normal mixture. *Biometrika, 88*(3), 767-778.
- Marsh, H. W., Lüdtke, O., Trautwein, U., & Morin, A. J. (2009). Classical latent profile analysis of academic self-concept dimensions: Synergy of person- and variable-centered approaches to theoretical models of self-concept.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6*(2), 191-225.
- Marteau, T. M., & Bekker, H. (1992). The development of a six item short form of the state scale of the Spielberger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1*(3), 301-306.
- McHugh, R. K., & Otto, M. W. (2012). Refining the measurement of distress intolerance. *Behavior Therapy, 43*(3), 641-651.
- Monteith, L. L., Bahraini, N. H., & Menefee, D. S. (2017). Perceived burdensomeness, thwarted belongingness, and fearlessness about death: Associations with suicidal ideation among female veterans exposed to military sexual trauma.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73*(12), 1655-1669.
- Oakey Frost, D. N., Harris, J. A., May, A. M., Bryan, A. O., Tucker, R. P., & Bryan, C. J. (2022). Internal entrapment and fearlessness about death as precipitants of suicidal thoughts and planning in the context of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52*(1), 147-158.
- O'Connor, R. C., & Nock, M. K. (2014). The psychology of suicidal behaviour. *The Lancet Psychiatry, 1*(1), 73-85.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 Ribeiro, J. D., Witte, T. K., Van Orden, K. A., Selby, E. A., Gordon, K. H., Bender, T. W., & Joiner Jr, T. E. (2014). Fearlessness about death: The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onstruct validity of the revision to the Acquired Capability for Suicide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28*(1), 115-126.
- Scrucca, L., Fop, M., Murphy, T. B., & Raftery, A.

- E. (2016). mclust 5: clustering, classification and density estimation using Gaussian finite mixture models. *The R Journal*, 8(1), 289-317.
- Seo, J. W. (2020). Thwarted belongingness and perceived burdensomeness in Korean college students: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ultural considerations for the Interpersonal Needs Questionnaire-10. *Death Studies*, 44(5), 261-269.
- Seo, J. W., & Kwon, S. M. (2014). Validation of the Korean-Distress Intolerance Index in a Korean college sampl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3(4), 783-801.
- Seo, J. W., & Kwon, S. M. (2018). Preliminary validation of a Korean version of the acquired capability for suicide scale fearlessness about death. *Suicide and Life Threatening Behavior*, 48(3), 305-314.
- Shin, M. S., Park, K. B., Oh, K. J., & Kim, J. S. (1990). A study of suicidal ideati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 The structural relation among depression, hopelessness, and suicidal ideation.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9(1), 1-19.
- Van Orden, K. A., Cukrowicz, K. C., Witte, T. K., & Joiner Jr, T. E. (2012). Thwarted belongingness and perceived burdensomeness: Construct validity and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Interpersonal Needs Questionnaire. *Psychological Assessment*, 24(1), 197-215.
- Van Orden, K. A., Witte, T. K., Cukrowicz, K. C., Braithwaite, S. R., Selby, E. A., & Joiner Jr, T. E. (2010). The interpersonal theory of suicide. *Psychological Review*, 117(2), 575-600.
- Van Orden, K. A., Witte, T. K., Gordon, K. H., Bender, T. W., & Joiner Jr, T. E. (2008). Suicidal desire and the capability for suicide: Tests of the interpersonal-psychological theory of suicidal behavior among adul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6(1), 72-83.
- Vermunt, J. K. (2010). Latent class modeling with covariates: Two improved three-step approaches. *Political Analysis*, 18(4), 450-469.
- Wachtel, S., Vocks, S., Edell, M. A., Nyhuis, P., Willutzki, U., & Teismann, T. (2014). Validation and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German Capability for Suicide Questionnaire. *Comprehensive Psychiatry*, 55(5), 1292-1302.

원고접수일: 2022년 7월 20일

논문심사일: 2022년 8월 8일

게재결정일: 2022년 10월 21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22. Vol. 27, No. 6, 985 - 997

Classification of Persons with Fearlessness About Death Using Latent Profile Analysis

Jang-Won Seo

Department of Psychology, Jeonbuk National University

The Interpersonal-Psychological Theory of Suicide (IPTs) suggests that suicidal desire and fearlessness about death are relatively independent. However, recent studies have consistently shown that those two variables are correlated. Thus, this study aimed to deline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uicidal desire and fearlessness about death using a latent profile analysis with 601 adult participants. Suicidal ideation, interpersonal variables that are related to suicidal desire, fearlessness about death, depression, anxiety, and distress tolerance were used for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are five latent groups. Three groups showed relatively high levels of fear of death and two groups showed relatively low levels of fear of death. Of the two groups with low fear of death, one showed high levels of suicidal ideation and the other showed low levels of suicidal ideation. Participants in the former group showed higher levels of depression and anxiety, and lower levels of emotional distress tolerance. On the other hand, participants in the later group showed lower levels of depression and anxiety, and average levels of emotional distress tolerance. These results are broadly consistent with the idea of IPTs. However, the number of participants in the high risk group (high suicidal ideation and low fear of death) was higher than expected. Moreover, those with strong suicidal desires and high fear of death were not extracted into a clear latent group. These results call for further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variables.

Keywords: suicide, capability for suicide, fearlessness about death, latent profile analysis